

보도 일시	2022. 1. 2.(일) 12:00	배포 일시	2021. 12. 31.(금) 16:30
담당 부서	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	책임자	과장 유호 (033-902-5050)
		담당자	연구관 곽경돈 (033-902-5070)
		담당자	연구사 노지연 (033-902-5071)

국과수, 기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- 8대 분야 중점추진으로 과거-현재-미래 잇는 과학수사 진행 -

-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(원장 박남규) 중장기 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‘과학수사 8대* 분야, 32개 과제에 전년도 대비 14.8%가 증액된 63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(전년도 55억 원).
- 국과수는 그동안 국내 최대의 법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마련과 숙련된 감정기법을 통한 각종 사건·사고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- 특히, 올해는 법의학 2개 분야(법의학, 심리), 법과학 3개 분야(유전자, 독성, 화학), 법공학 3개 분야(안전, 디지털, 교통) 등 총 8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.
- 국과수는 8개 분야 중점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로 하는 감정기법에서부터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각종 사건·사고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- 먼저, 법의학 분야는 사인 및 인체손상 해석기법 관련 연구를 통한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확인, 사망원인 분석(법의학) 및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(심리) 를 수행한다.
- 올해에는 PMCT(경피적극초단파응고법)을 활용한 사망원인 연구, 법의 부검기반 아동학대 사망원인,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, 엑소좀 기반 급성심장사 연구, 법심리 감정장비 연구, 법인지 신경과학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- 법과학 분야는 DNA감식 및 법생물학적 연구(유전자), 생체시료의 약독물 및 규제물질 규명(독성), 성분프로파일링을 통한 화학적 해석연구(화학)를 수행한다.
- 법과학 분야를 활용하여 오래된 유전자의 분석법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향상과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* 유해봉환 전담반에 적용을 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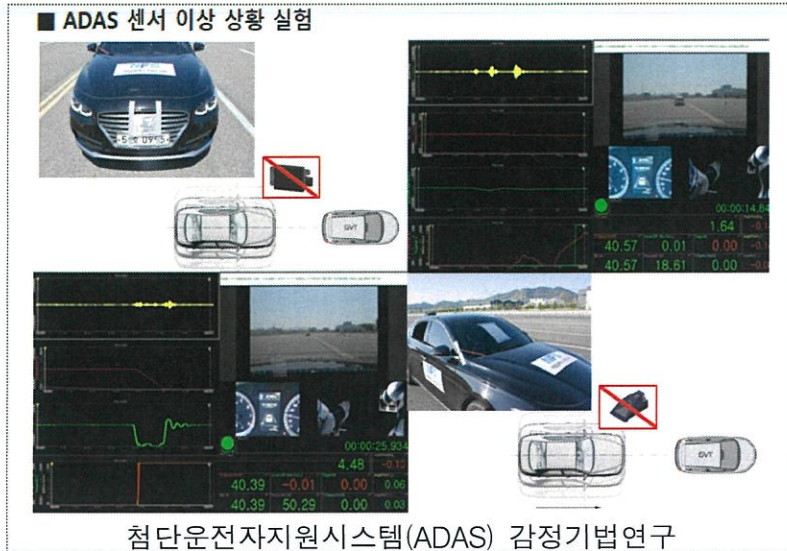


* 타라와 지역 한국인 희생자: 586명(일본 제작 '피징용사망자연명부' 기준)

- 올해는 알코올대사체를 이용한 음주시간 역추적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판별법 개발을 수행하여 한국인에 맞는 위드마크공식*을 실제 감정에 활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

* 위드마크공식 :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역추산 공식

- 법공학분야는 안전사고 원인규명(안전), 생체인식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연구(디지털) 및 교통사고 원인규명 및 분석을 위한 사고분석 관련 연구(교통)등이 포함된다.
- 올해는 고의교통사고 여부 판단 관련 연구 고도화를 통해 억울한 사건 해결부터,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(ADAS,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) 구축 등을 진행한다.
- 아울러 차량 증가에 따른 관련 교통사고 재현 및 사고해석 연구를 통하여 자율운전 사고 감정에 활용할 예정이다.



○ 또한, 화재사고 VR적용 현장 감정, 총기감정 고도화, 혈흔형태 등 형태학적 분석을 통한 범죄 재현을 통한 사건해결의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.

□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“올해는 각종 감정기법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지원하여 민생치안 역량강화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.” 라며, “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사회 실현에 앞장서고, 그 성과를 국외업무협약기관*에 전파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법과학분야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* 몽골(과학수사연구소), 미국(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), 베트남(공안부형사과학원), 스리랑카(법무부 정부분석국) 등